



윤종규 KB금융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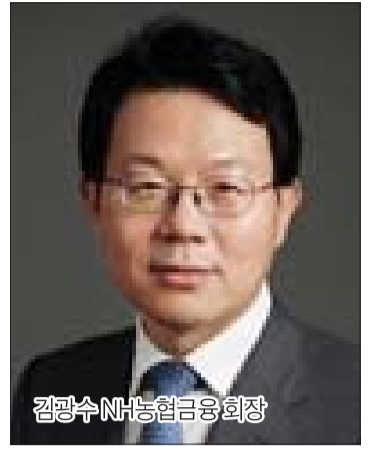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금융 회장

5대 금융지주 하반기 전략은 “고객중심·엔택트 강화”

고민 깊은 회장님들... 잇단 전략회의 “코로나 진검승부”

KB금융, 내일 경영전략회의 개최
NH농협금융 22일, 신한금융 27~29일
충담금 추가 적립, 리스크 관리 등 논의

금융지주사가 줄줄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상반기는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충담금 추가 적립과 리스크 관리, 엔택트 강화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개별 금융지주별로도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가 지난 3일 가장 먼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끝냈으며, KB금융지주는 오는 10일 화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는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신한금융지주가 27~29일로 잡아놓은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도 이달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3일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열었다. 손태승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50여명의 그룹사 주요 임원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본부장급 등 다른 참석 대상 직원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참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그는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엔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의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객중심 경영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그룹 확장 및 시너지 등을 제시했다. KB금융은 화상회의로 하반기 경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미 잘 갖춘 만큼 CEO들도 모두 화상으로 참여한다.

올해 경영전략 키워드로 내놓은 ‘리드(L.E.A.D) 2020’의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엔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2020은 ▲그룹 핵심경쟁력 강화(Level up the core) ▲사업영역 확장(Expansion)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KB 구현(Active & creative KB)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customer centric) 등 4가지 방향을 말한다.

농협금융은 계열사 CEO와 전략 담당임원 등 4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상반기 성과분석과 디지털 전환 등 하반기 경영전략을 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하반기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한다.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그룹의 디지털 전략과 펀더멘탈(기반·기초체력) 및 회복탄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적립혜택 높은 배민 전용 현대카드 출시

배달 앱 전용 PLCC, 배민이 처음
고객 중심 차별화된 리워드 혜택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배달의민족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김범준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고 배민 전용 PLCC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PLCC는 전용 신용카드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카드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 운영하는 카드다. 일반 제휴카드보다 해당 기업에 더욱 집중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PLCC를 출시하는 것은 배달의민족이 처음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오른쪽)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배달의민족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배민 앱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리워드 혜택이 담긴 ‘배민 PLCC’를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민 앱 간편결제서비스인 ‘배민페이’에 배민 PLCC를 등록하고 결제할 경우, 앱 주문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배민포인트의 적립율을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일 예정이다.

또한 배민 주요 고객층인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엔택트 소비에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 이용 시 배민 PLCC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배민포인트로 돌려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기업전용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대출 신청,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등 모든 과정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스크래핑 기술로 자동 제출돼 고객이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존 기업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 기업’에서 입출식 계좌 개설 후 기업 전용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하면 기존 고객과 동일한 절차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나우리 기자

신한카드, 車 혜택 총집합 ‘마이카 카드’

신한카드는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전용 상품인 ‘신한카드마이카(MYCAR)’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마이카 카드는 차량 구입부터 주유, 정비 등 자동차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카 카드로 자동차 구입시 구매 방식과 관계 없이 캐시백을 제공한다. 일시불 또는 12개월 미만 단기 할부로 신차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0.2%,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또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 할부 금융, 장기렌터카, 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이용한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마이카 카드는 차량 주유소, 충전소 이용시 할인을 제공한다. 휘발유는 리터당 80원, 경유는 휘발유가 환산 적용

LPG는 리터당 4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월 1만원 한도로 충전금액 30%에 대해 할인해준다.

이 외에도 차량정비 업체, 주차 및 대리운전, 하이패스 카드 등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 관리 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카드 플레이트도 특수 잉크를 사용해 자동차 고급 시트 재질의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다”며 “신한카드가 구매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내 컬처뱅크 복합점포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광주에 문화 공유 플랫폼 ‘컬처뱅크’

하나금융그룹은 8일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에 컬처뱅크 7호점이자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개점했다.

하나은행 광주지점과 하나금융투자 광주금융센터는 전일빌딩245로 이전하면서 지역 문화 공유 플랫폼인 ‘컬처뱅크’를 선보인다. 지역사회의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은행·증권 복합점포로서 편리하고 차별화된 윈 스태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의 공간으로 4년여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금년 3월 시민을 위한 미래 문화창조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나은행의 컬처뱅크는 은행 지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형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특화 콘텐츠 점포 등을 구축해 왔다. /나우리 기자 yul115@